

장흥군 “고품질 조사료 생산 박차”

축산농가 안정적 경영·수입 조사료 대체 사업비 90억원 투입 기반 확충 사업 추진

장흥군이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축산업 경영과 수입 조사료 대체를 위해 고품질 조사료의 생산·공급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장흥군은 2021년도 사업비 90억 원을 투입해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 사업은 조사료 제조 운송비, 기계 장비 공급, 종자대공급, 임묘종과종비 퇴·액비 지원으로 총 5개 사업이다. 군은 코로나19로 인한 5인 이상 집

합 금지 상황에서 고품질 조사료의 원활한 생산·공급을 위해 지난 1월 18일부터 1월 20일까지 각 읍·면을 순회하며 조사료 경영체와 소통의 시간을 갖고, 조사료 생산과 이용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이를 통해 올해 변화된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 관련 시행 지침 개정 내용과 사료 작물 확대 생산 등을 안내하고, 조사료 재배 및 이용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기준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지난해까지 1ha 120만 원(보조 90%, 자부담 10%) 지원이었으나 2021년 변경된 기준에 따라 1ha 108만 원(보조 90%, 자부담 10%)으로 지원 단가가 감소(물당 규격이 500kg → 445.2kg로 축소되었다)하였다.

올해 사일리지 지원 기준이 생산량 기준에서 면적 기준으로 변경되고, 지원 단가가 감소함에 따라 농가들의 적정 파종량 준수 및 무분별한 화학비료 사용 자제가 요망된다.

고품질 조사료 생산을 위해 농가들의 적정 기준량에 맞는 종자 살포와

배수로 정비, 눌러 주기(진압), 웃거름 주기, 과도한 화학비료 자제 등을 현수막, 마을방송, 반상회의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정중순 장흥군수는 “동계 사료 작물 월동 후 관리 요령에 따라 양질의 조사료가 생산될 수 있도록 재배 기술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며 “앞으로 변경된 기준에 맞게 국내 조사료 생산 기반을 확충하는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서겠으며, 농가들에게 변경된 기준을 적극 홍보하여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완도군, 해양문화치유센터 밑그림 나와 올해 말 준공...오감(五感) 테마로 한 치유프로그램 제공

완도군은 지난 20일 군청 상황실에서 ‘해양치유 블루존 조성’ 사업의 일환인 해양문화치유센터 건립을 위한 실시계획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해양문화치유센터는 신지면 명사십리 부지에 11억 원을 투입해 지상 1층, 6동, 연면적 390㎡ 규모로 조성되며, 12월 말 준공할 예정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맞춰 가상증강현실(VR), 사물 인터넷(IOT)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한 전시 시설과 콘텐츠를 구축하여 해양문화치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해양문화치유센터가 건립되면 해양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인체 오감 치유프로그램을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제공하고, 문화 활동으로 건강 증

진과 심신 치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해양치유센터·해양기후치유센터 등의 치유시설을 함께 집적한 해양치유단지가 조성되어 인구유입,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전망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치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 운영한 해양치유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면서 “앞으로 이용객에게 즐거움과 힐링을 선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해양문화치유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장흥군, 제1회 아동 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회 회의 개최



장흥군, 제1회 아동 학대

장흥군은 지난 20일 제1회 ‘장흥군 아동 학대 대응 정보연계 협의체’ 정기 회의를 장흥군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실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체는 장흥군 노인아동과장을 위원장으로 장흥경찰서, 장흥교육지원청, 전남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실무자들이 참여했

으며, 아동 학대 대응에 대한 정보체계를 공유하여 각 기관의 사례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주요 협의 사항은 국가 아동학대시스템 내 학대 피해 아동의 정보 공유 및 피해 아동의 보호 계획 수립 등이 있다.

정봉식 노인아동과장은 “아동 학대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이 강화된 만큼, 아동 보호와 관련된 기관들과 상호 협력하여 아동이 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대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진도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6월말까지 연장 운영

51종 774대 대여 가능

진도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손 부족과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경영부담을 덜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진도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은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51종 774대 농기계 대여가 가능하며, 오는 6월말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는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약 5,000대를 임대했고, 1억 원의 임대료 감면을 통해 농가 경영비 절감에 크게 기여했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매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임대료 감면 연장으로 영농에 도움이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기자



강진군, 청렴도 향상 방안 논의

하락요인 분석·담당자 교육도

강진군은 지난 2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실적소 및 읍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청렴도 향상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작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른 청렴도 하락요인을 항목별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부서별 대책

을 함께 논의했다.

군은 지난 청렴도 평가 분석결과 인허가 분야가 청렴도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함에 따라 올해부터 민원인 대상으로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 불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청렴서한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 민원업무 담당자 대상으로 청렴 교육도 강화하여 실시한다.

강진=김영일기자

해남군, 장기요양보호기관 종사자 수당 지급 코로나 극복 사기진작 기여...선제적 방역도 총력 추진

해남군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최일선에서 돌보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 올해 1월부터 수당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노인요양시설 요양서비스 종사자에게 월5만원의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에게는 요양보호사처우개선수당 2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관내 61개소 장기요양기관, 총 1,000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함께 장기요양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해남군은 전국적으로 요양시설이 코로나 집단감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지난해 10월부터 요양병원 등 61개소 종사자 및 입소자 2,000여명을 대상으로 3차에 걸쳐 선제적 전수검사를 실시했으며, 2주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진행하는 등 감염자를 조기 발견해 지역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요양시설 내 외부인 출입차단, 종사자 및 입소자·이용자 이동 동선 확인 및 발열체크, 소독 실시 여부 등 방역준수사항을 일회 모니터링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만나서 영광입니다!
영광의 청정자연과 어우러져 탄생한 건강한 우리 식품을 만나보세요